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제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4_02

ARS+CATI

제32차 ARS조사

제17차 CATI조사

www.flowerresearch.com

여론조사꽃

제3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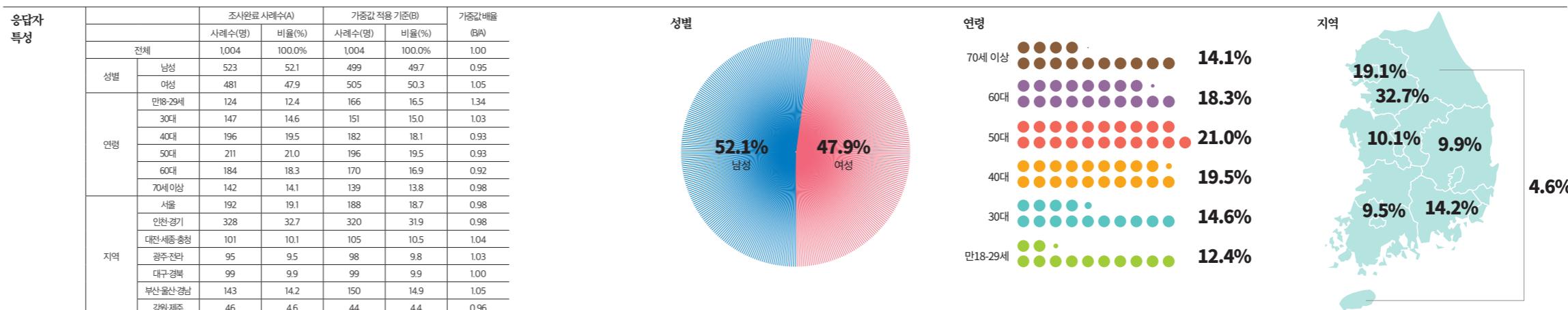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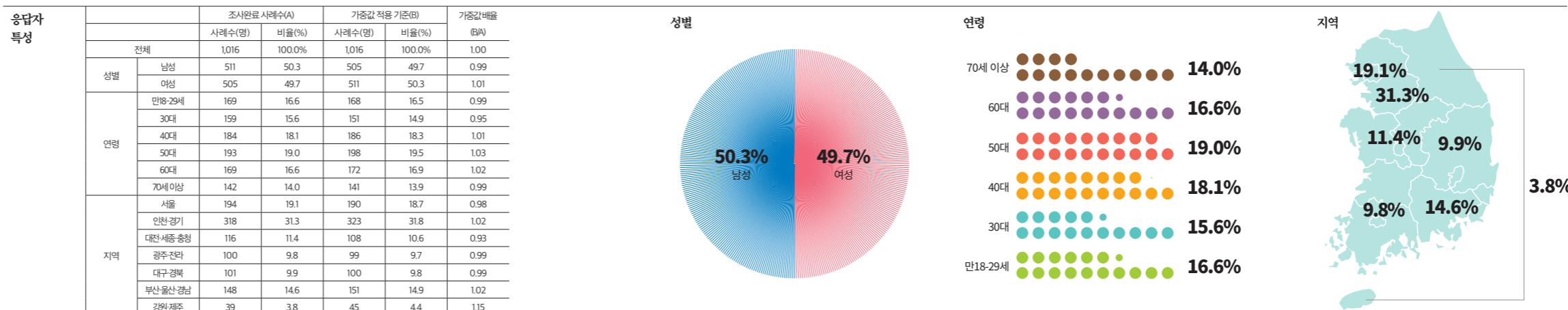
ARS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0% [총 통화시도 33,868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7일 ~ 4월 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CATI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6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7% [총 통화시도 6,102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7일 ~ 4월 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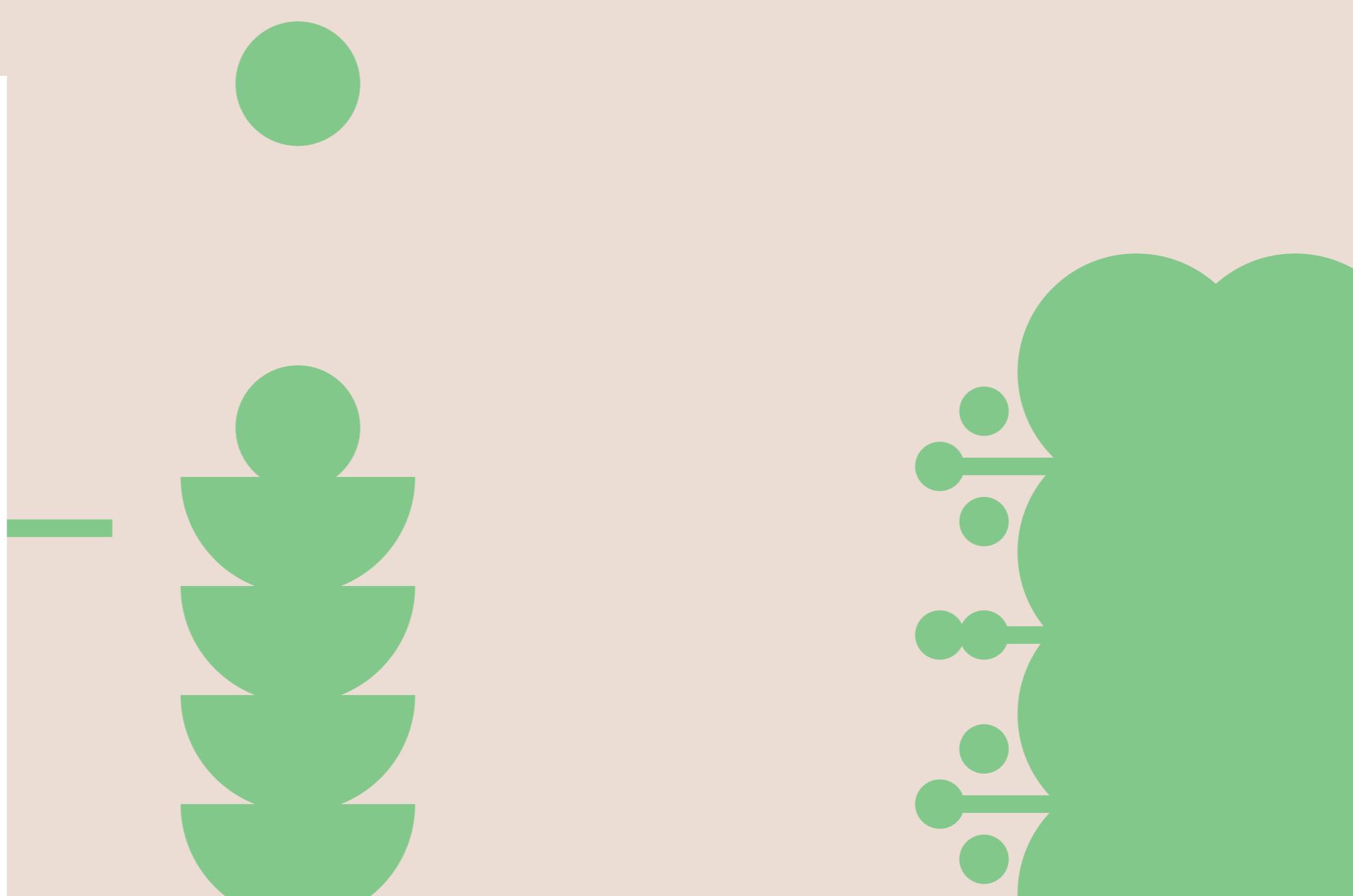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꽃

제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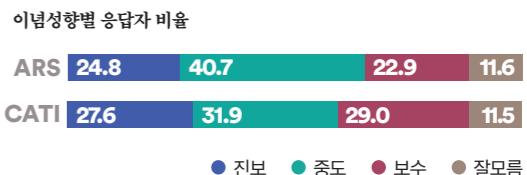


ARS & CATI / CATI

정당지도

국정운영 평가

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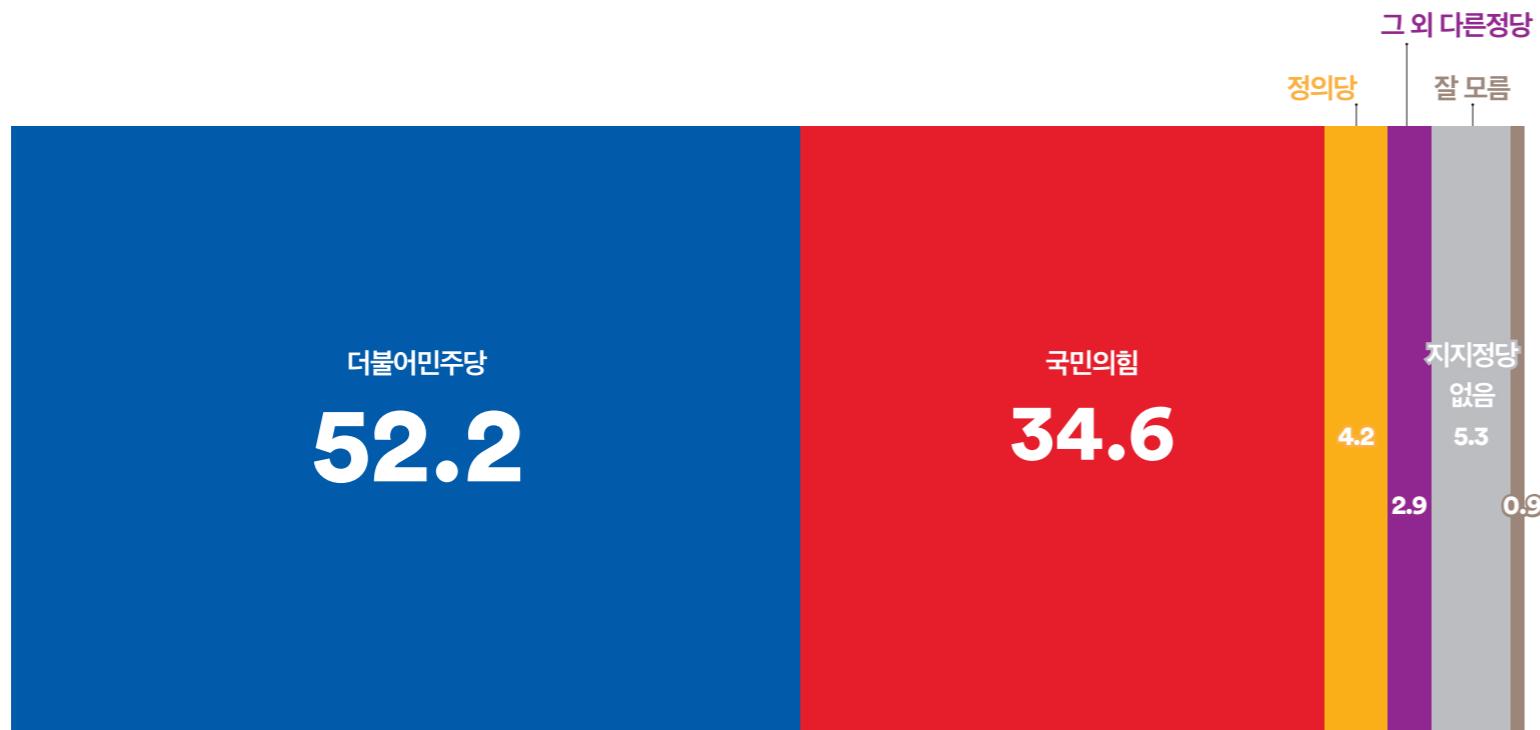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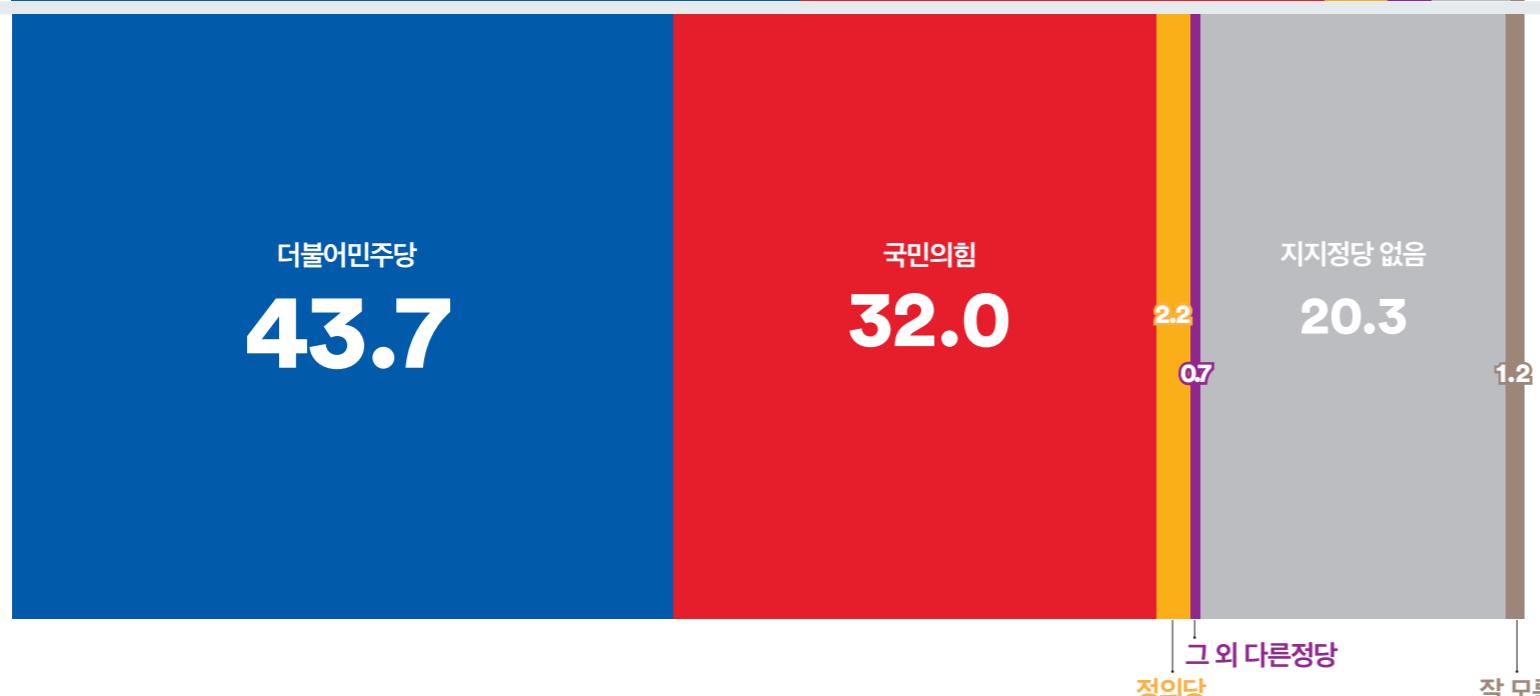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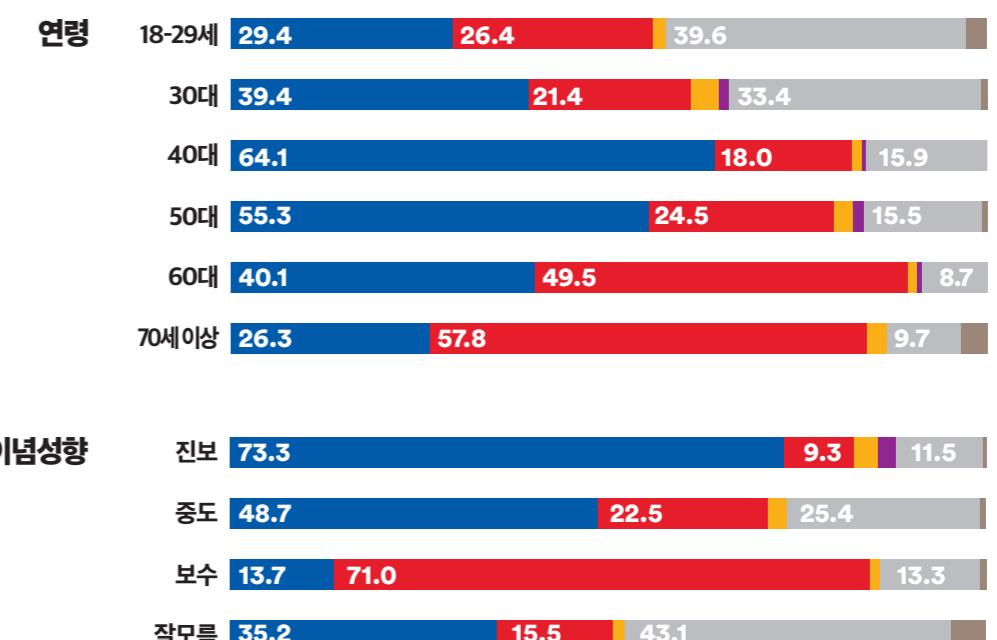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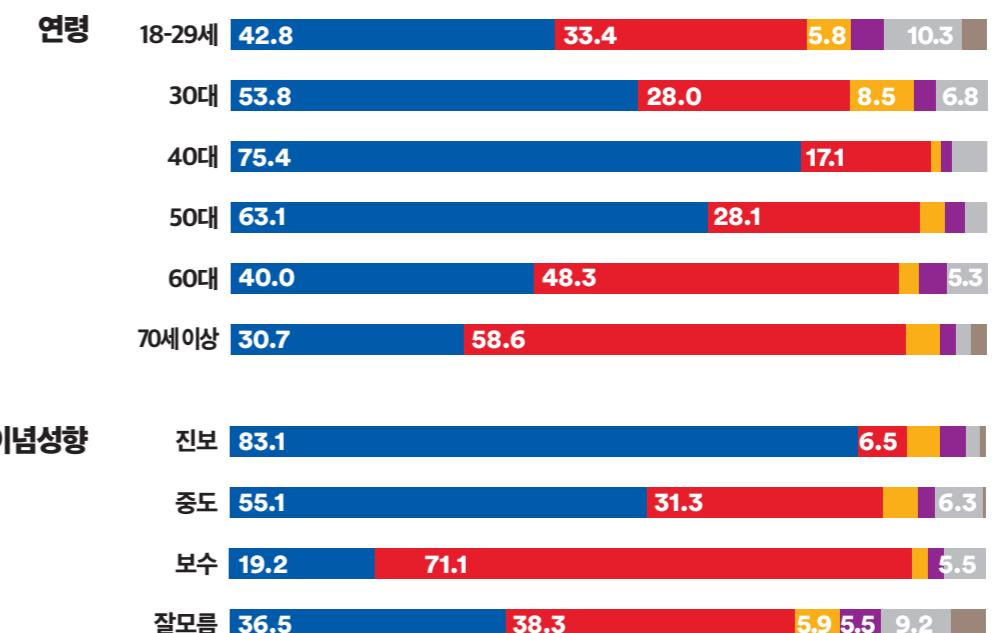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 상승, 국민의힘 3.8%p 하락(격차 17.6%)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1%p 상승, 국민의힘 0.1%p 하락(격차 11.7%)

지난 주 격차(ARS: 13.2%, CATI: 11.5%) 대비 소폭 더 벌어짐,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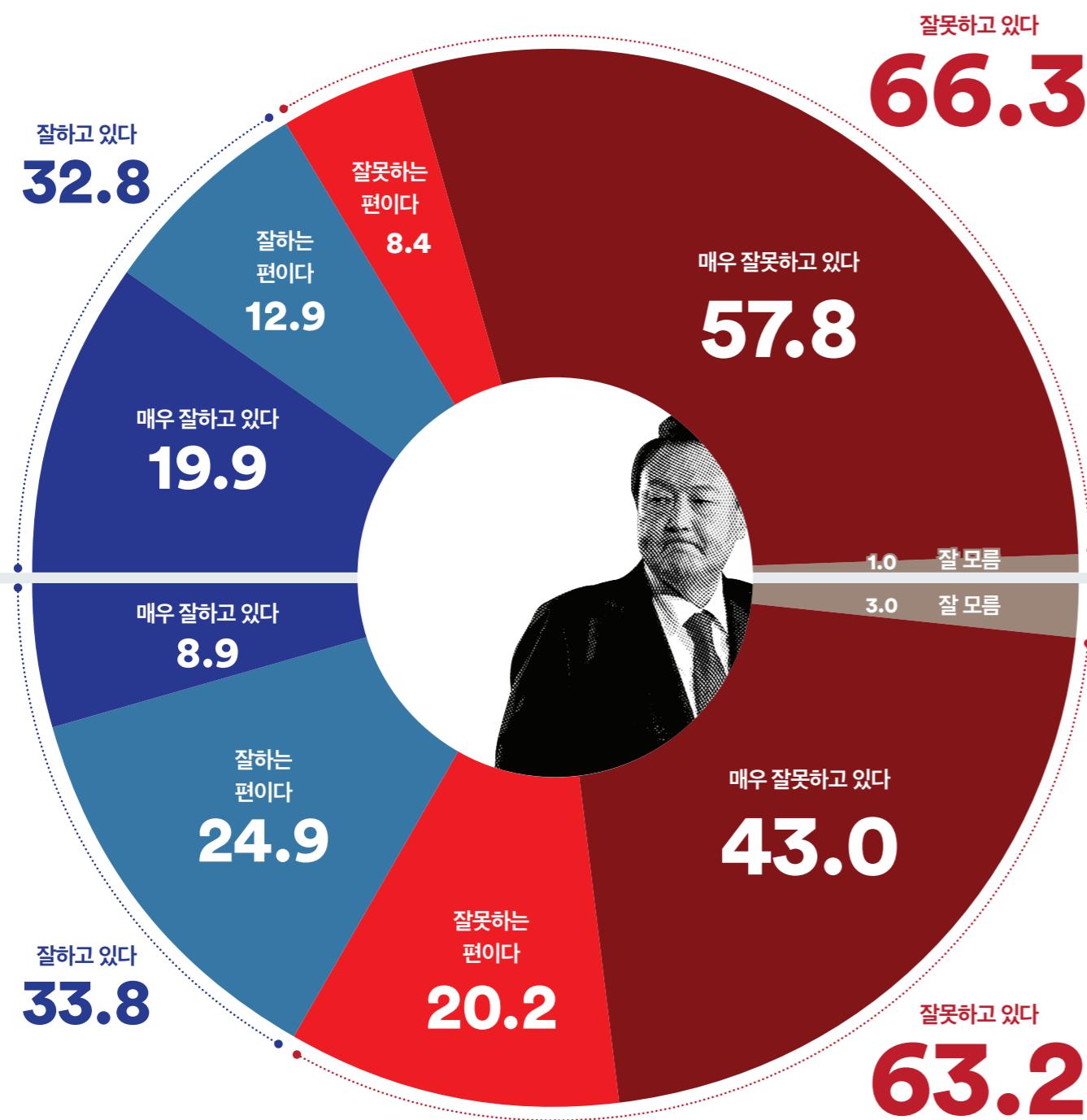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4.7%p 하락, 부정평가 4.1%p 증가(격차 33.5%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6%p 증가, 부정평가 0.5%p 증가 (격차 29.4%p)

두 조사 모두 진보층·중도층은 부정 평가 우세, 보수층은 긍정 평가 우세

CATI

성별	남성	62.4	37.2	-4.2	33.0	66.6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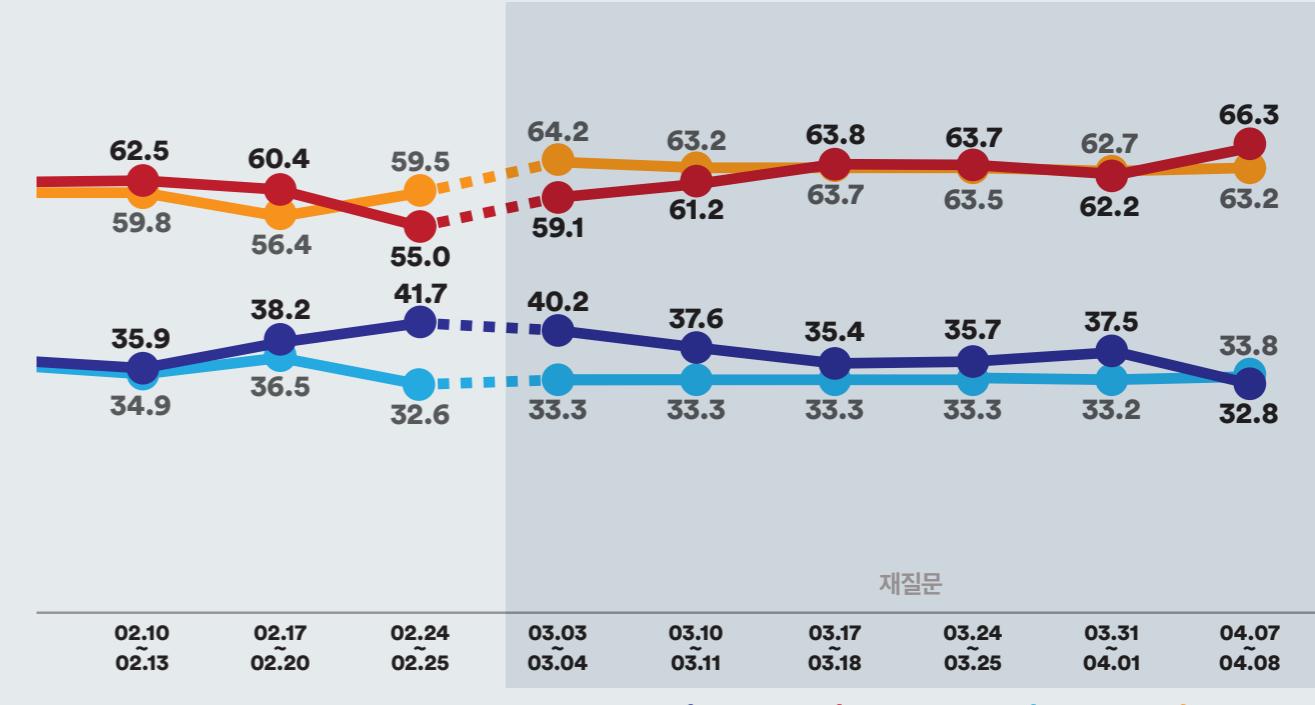
여성	62.1	37.7	-5.2	32.5	65.9
----	------	------	------	------	------

31차 ARS조사

격차

32차 ARS조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성별	남성	60.9	35.7	-1.2	34.5	62.8
----	----	------	------	------	------	------

여성	64.4	30.6	+2.5	33.1	63.6
----	------	------	------	------	------

16차 CATI조사

격차

17차 CATI조사

격차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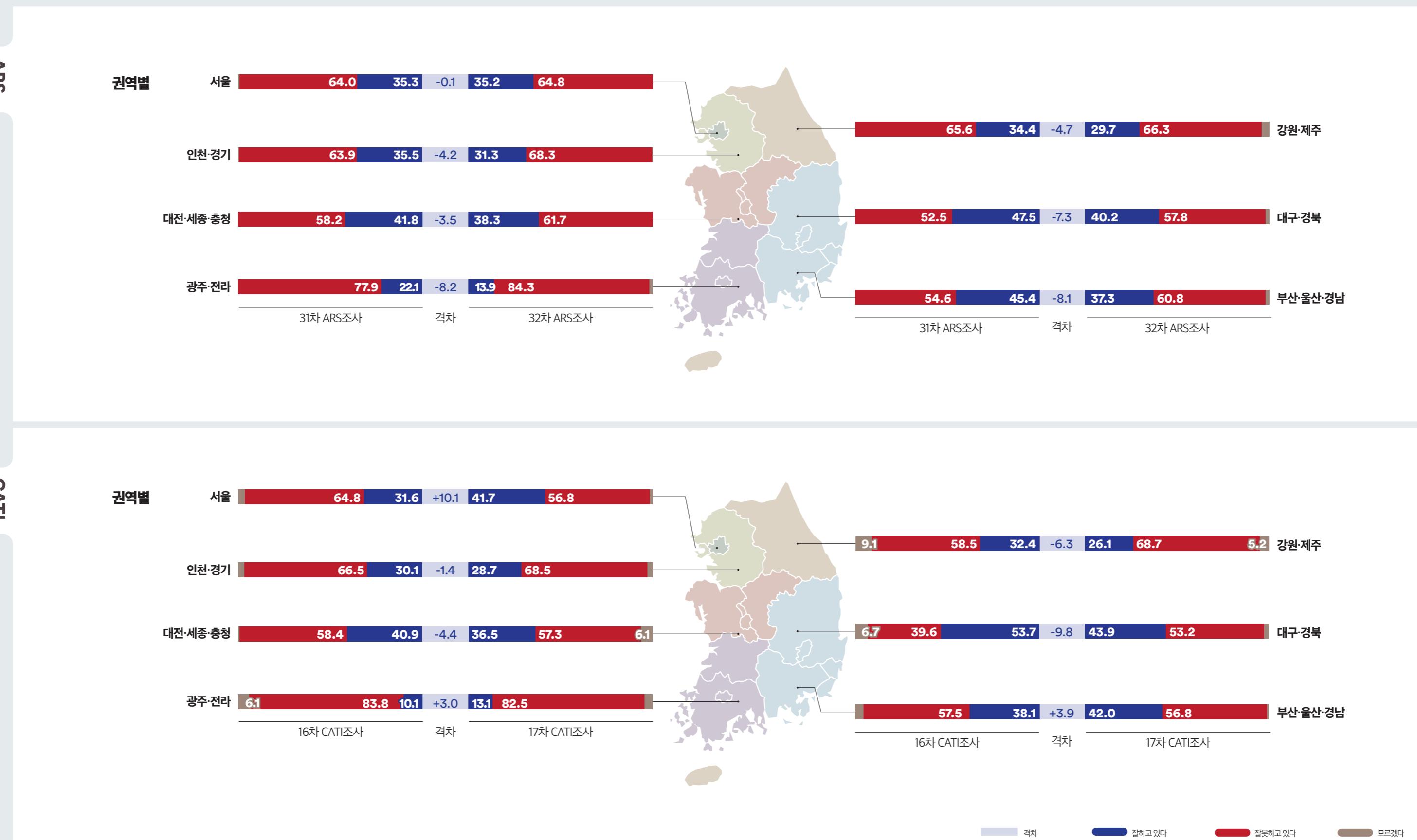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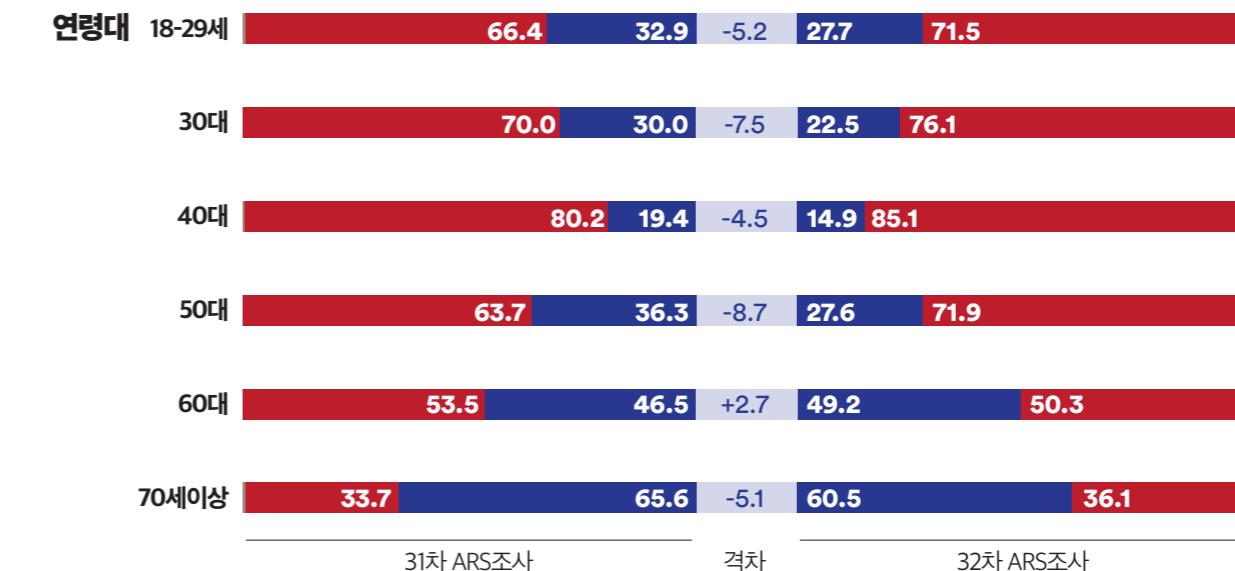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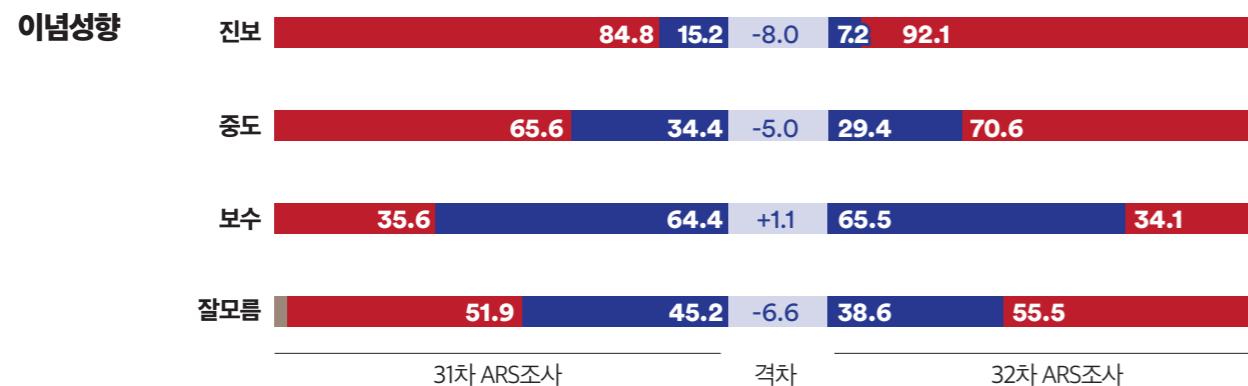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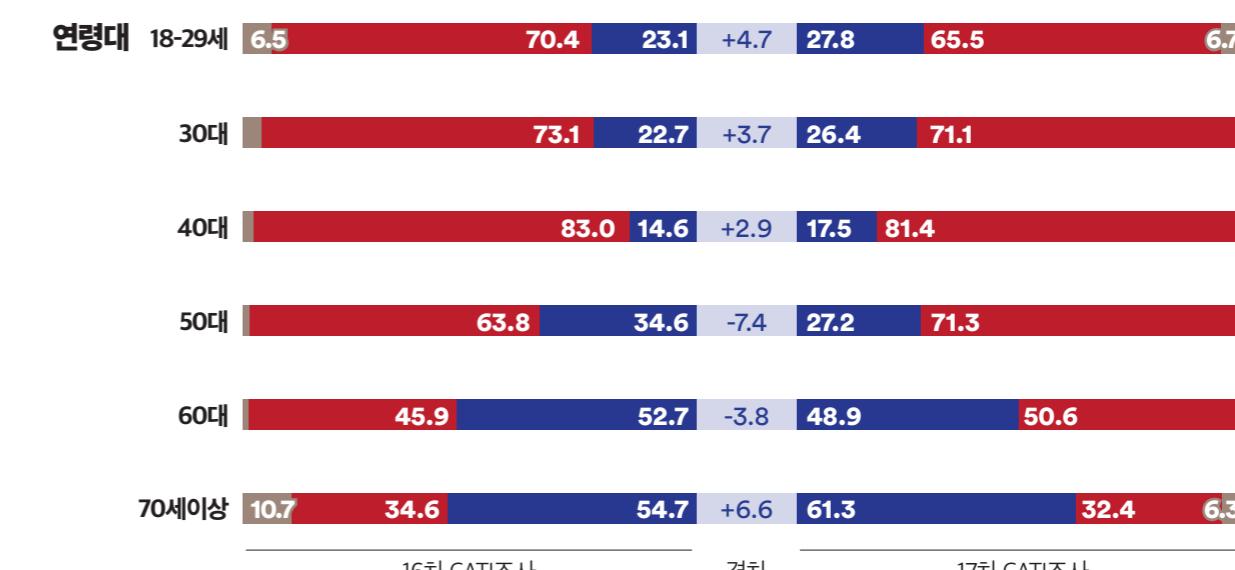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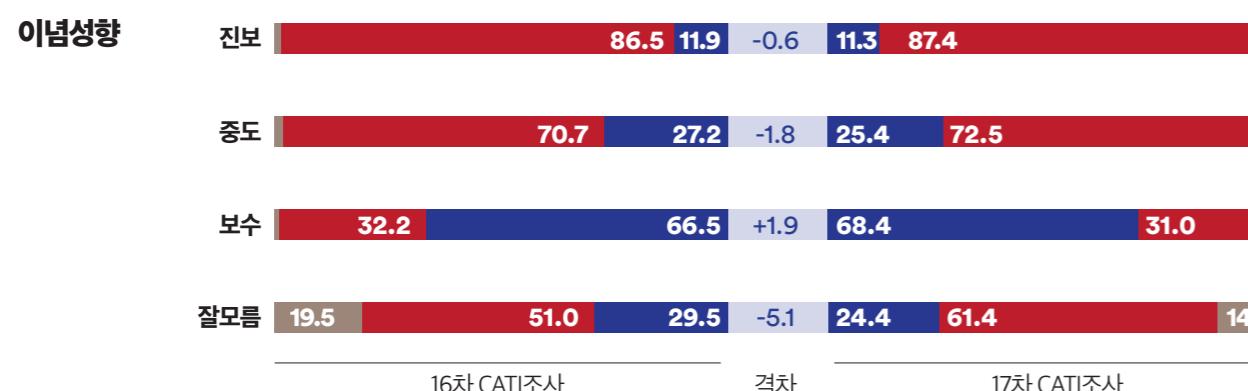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민심에 관한
ARS + CATI 조사 보고서

여론조사꽃 제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총선 특집

ARS & CATI / CATI

- 정치·사회** 총선 인식
현안 선택의 기준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검사출신들의 차기 총선 출마
최다 의석정당 예측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차기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총선 인식

Q.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에 대한 다음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ARS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2.9

CATI

33.6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권력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6.9

권력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위해
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51.6

23.6

다양성을 위해
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11.7

3.7

6.0

잘 모름

권역

서울	35.3	47.0	12.7	5.0
인천·경기	29.8	55.2	11.4	
대전·충청·세종	37.7	49.9	10.0	
광주·전라	14.9	69.5	12.7	
대구·경북	37.1	45.7	12.0	5.2
부산·울산·경남	41.5	47.1	10.1	
강원·제주	35.1	39.0	16.4	9.5

연령

18-29세	31.4	48.1	15.0	5.4
30대	23.7	57.3	16.6	
40대	13.9	72.0	10.6	
50대	27.1	57.7	12.9	
60대	49.8	38.9	8.0	
70세 이상	57.2	29.9	6.8	6.1

성별



성별

권역

서울	39.8	35.5	18.5	6.2
인천·경기	28.5	39.7	25.1	6.6
대전·충청·세종	31.8	35.1	27.9	5.1
광주·전라	14.1	52.8	25.8	7.3
대구·경북	40.9	30.7	21.6	6.7
부산·울산·경남	44.4	31.0	22.1	
강원·제주	37.8	24.6	28.0	9.6

이념성향

진보	10.9	63.7	22.5
중도	21.6	39.0	34.2
보수	70.1		13.6
잘 모름	29.1	26.5	22.4

ARS |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앞섰

CATI | 경인, 충청,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고

서울, TK, PK, 강원·제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 비율이 더 많음

중도층: ARS(더민주 53.4% / 국힘 31.0% / 소수·무소속 12.5%), CATI(더민주 39.0% / 국힘 21.6% / 소수·무소속 34.2%)

무당층: ARS(더민주 28.6% / 국힘 27.4% / 소수·무소속 33.2%), CATI(더민주 18.1% / 국힘 23.2% / 소수·무소속 41.9%)



정치·사회 현안

총선: 선택의 기준

Q. 차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34.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경제 상황 평가'(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무당층에서도 '경제 상황 평가'란 응답(38.2%)이 가장 많음



연령대	18-29세	37.9	28.5	10.7	7.1	7.0	7.0
	30대	30.1	38.7	10.7	8.9	6.0	
	40대	25.0	26.8	32.9	6.7	5.0	
	50대	32.0	27.4	28.3	5.6		
	60대	24.8	23.0	31.3	6.5	5.4	7.9
	70세 이상	16.9	21.3	23.3	10.7	9.9	16.6

권역	서울	30.5	26.7	23.7	7.7	5.7
	인천·경기	25.0	25.2	26.3	8.7	7.1
	대전·세종·충청	26.6	21.4	24.2	9.0	10.5
	광주·전라	22.6	33.9	20.5	6.5	10.7
	대구·경북	32.8	30.0	21.5	5.9	5.0
	부산·울산·경남	32.3	34.7	17.3	5.2	6.6
	강원·제주	31.5	19.4	31.1	6.1	7.4

이념성향	진보	25.2	28.4	32.4	5.2	6.0	
	중도	32.0	33.1	20.0	7.4	2.5	
	보수	25.5	25.3	21.9	9.1	9.2	7.0
	잘 모름	30.5	16.7	16.1	6.1		25.8

성별	남성	28.5	28.2	23.3	7.2	6.8	
	여성	27.7	27.0	23.5	6.3	5.5	8.7

■ 경제상황 평가 ■ 후보자의 자질과공약 ■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 현역의원 평가 ■ 정당에 대한 평가 ■ 그 외 다른이유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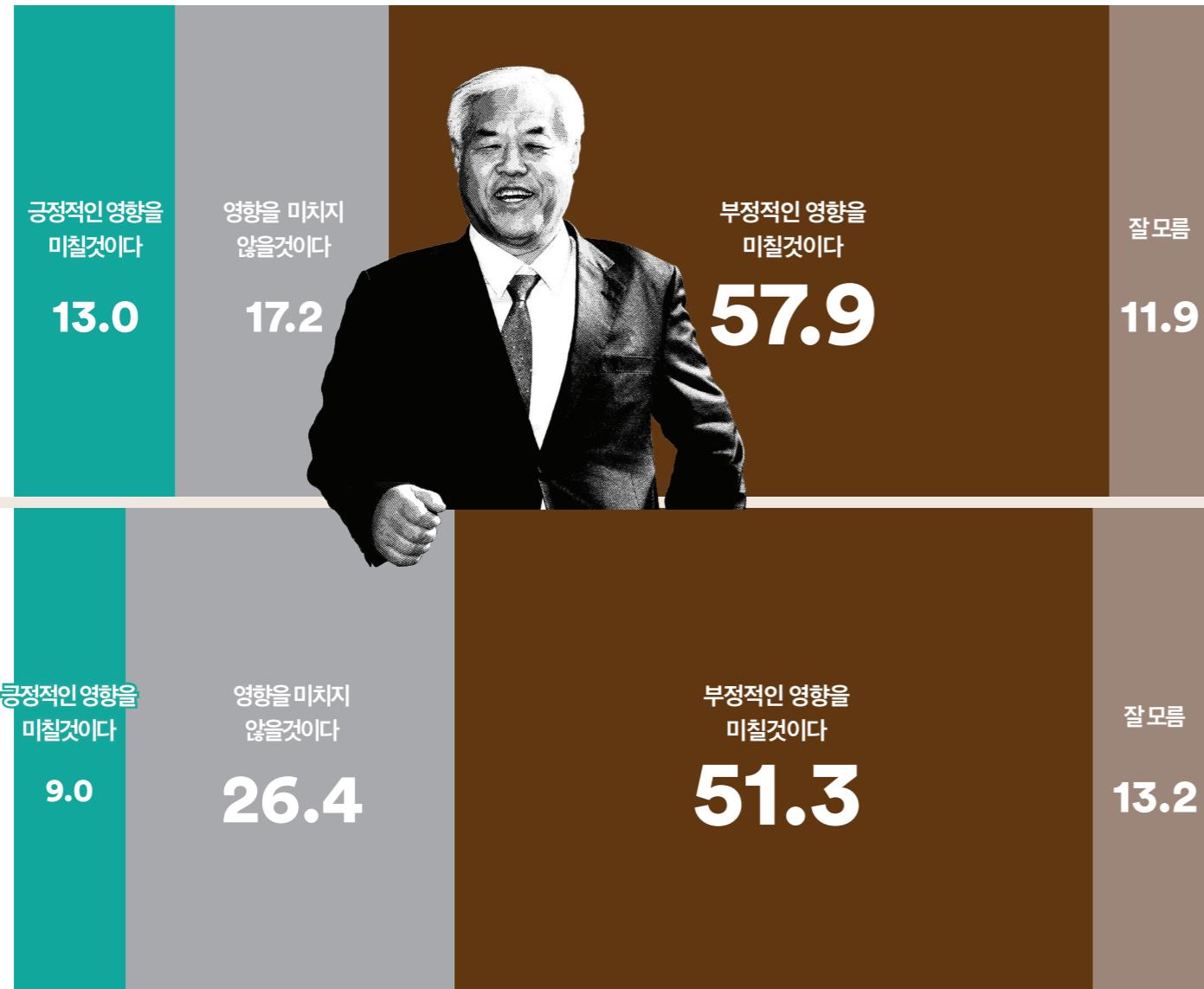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총선: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

Q.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전광훈 목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 보수층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

중도층 응답자는 10명 중 6명 정도, 무당층 응답자는 70.0%(ARS), 41.6%(CATI)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

연령

18-29세	10.1	16.0	56.3	17.6
30대	9.8	16.3	65.1	8.8
40대	7.8	12.2	72.4	7.6
50대	17.1	19.4	57.8	5.7
60대	16.2	18.3	47.0	18.5
70세이상	16.9	21.5	46.5	15.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0.2	10.2	70.8	8.9
국민의힘	19.7	25.2	39.8	15.4
정의당	37.8		49.0	11.3
기타 다른정당	27.3		27.9	38.8
지지정당 없음	14.7	70.0		15.4
잘모름	37.8			62.2

성별

성별

권역

서울	8.4	23.3	53.0	15.4
인천·경기	6.4	23.8	55.8	14.1
대전·충청·세종	6.4	35.0	48.5	10.1
광주·전라	7.4	24.6	54.0	14.0
대구·경북	13.8	29.1	44.2	12.9
부산·울산·경남	14.4	26.9	47.0	11.6
강원·제주	11.1	34.4	44.1	10.4

이념성향

진보	7.8	21.2	60.5	10.5
중도	6.8	23.8	58.1	11.2
보수	15.7	29.8	42.6	11.8
잘모름	36.8		33.6	28.0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런 영향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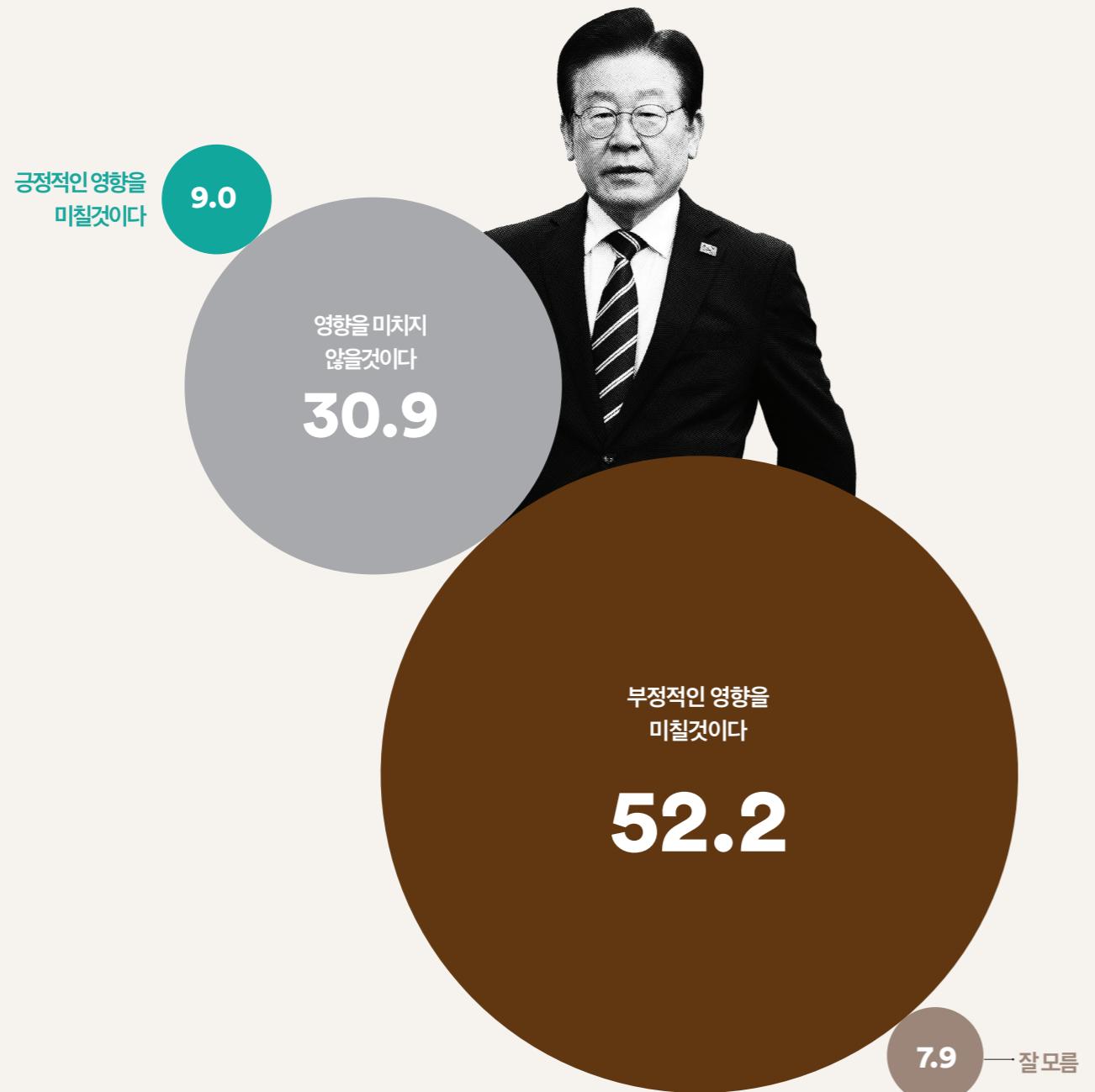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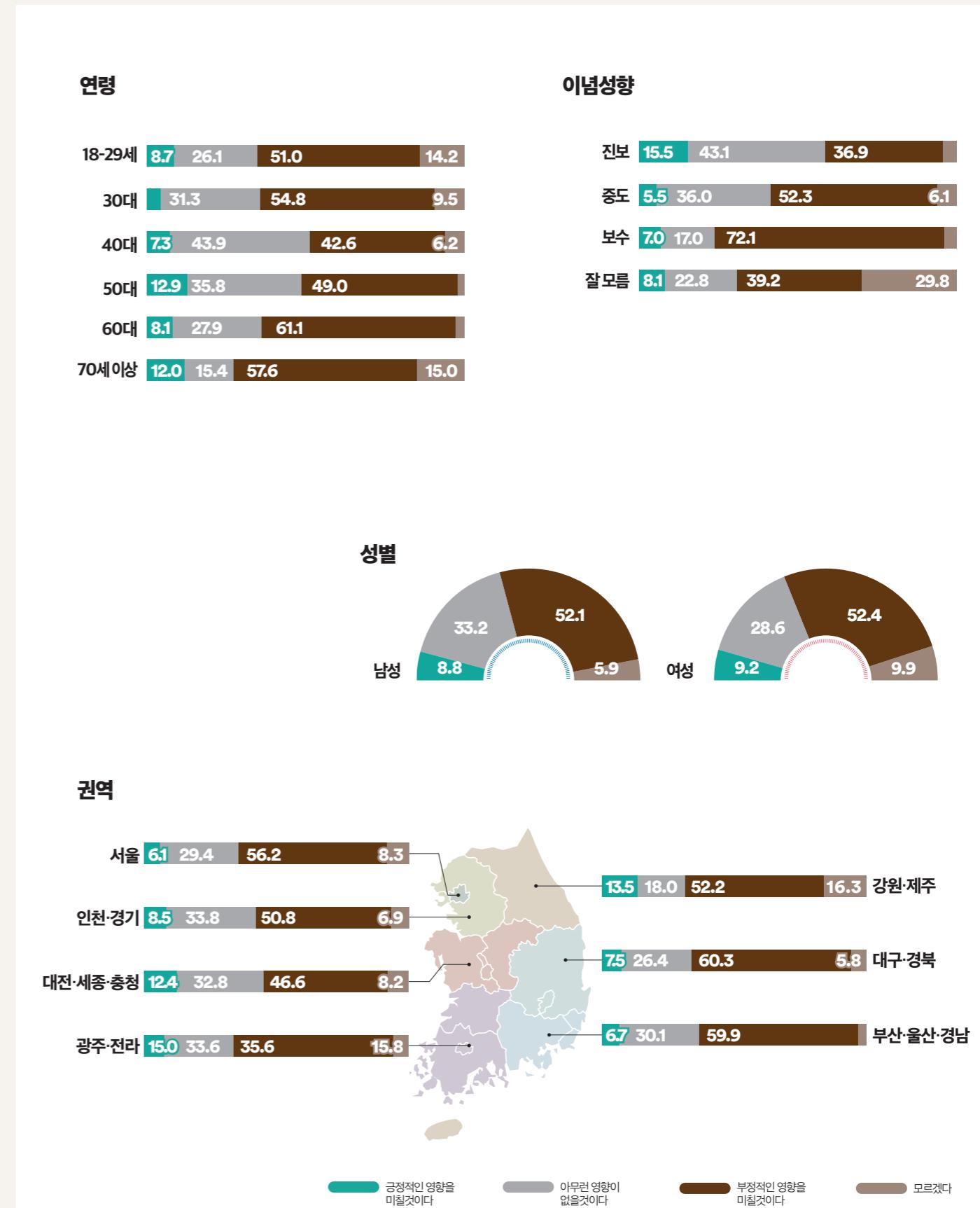
Q.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10명 중 5명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영향 없음' 46.6% / '부정적 영향' 33.1%, 진보층에서는 '영향 없음' 43.1% / '부정적 영향' 36.9%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의 경우, TK(60.3%)와 PK(59.9%), 60대 응답층(61.1%)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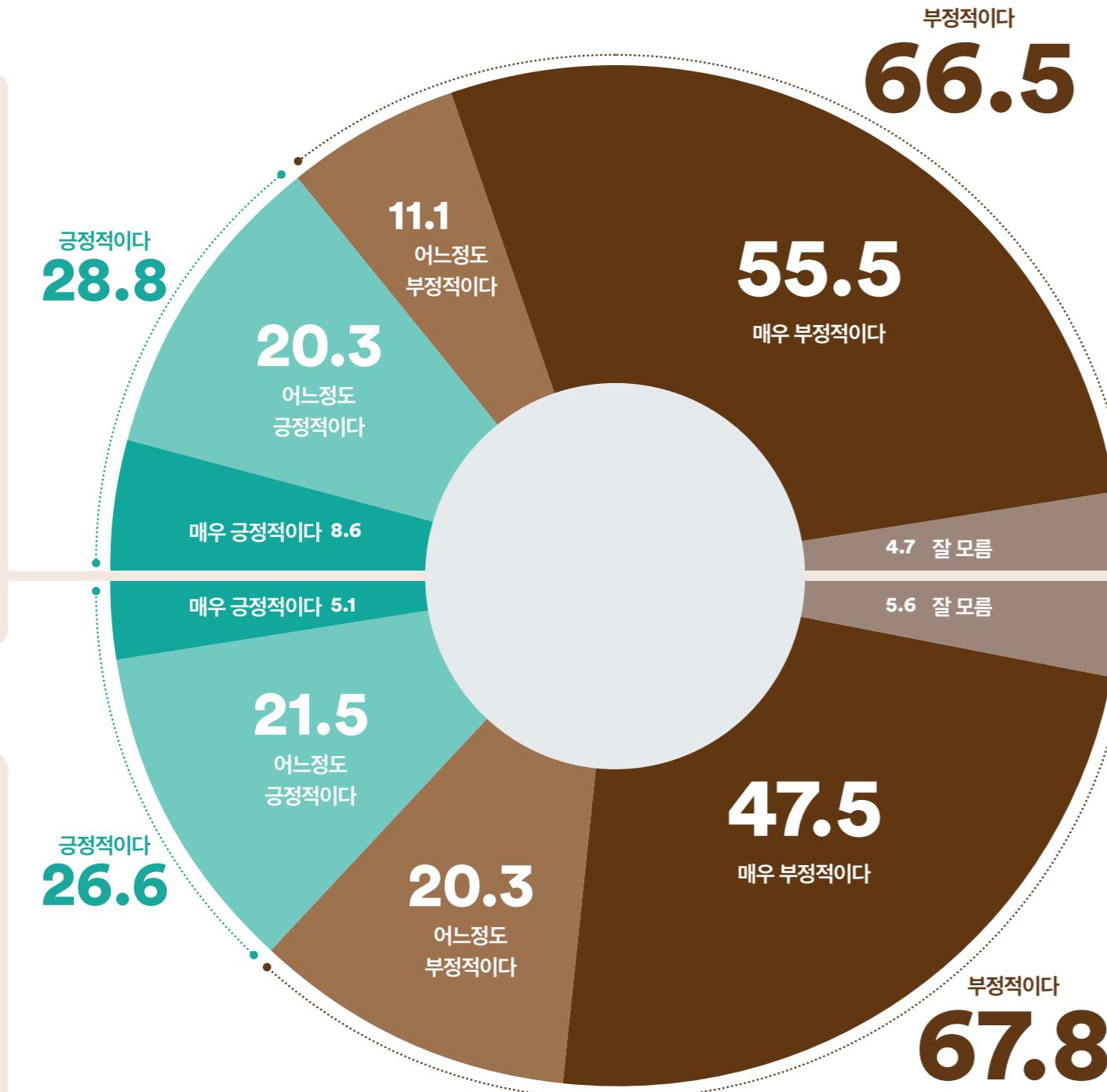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총선: 검사 출신들의 자기 총선출마

Q.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대거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전·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60대 이하 응답층과 무당층, 중도층에서는 부정인식이 우세를 보임

보수층에서는 ARS(긍정 55.3% / 부정 41.8%), CATI(긍정 49.3% / 부정 43.7%)으로 부정인식이 적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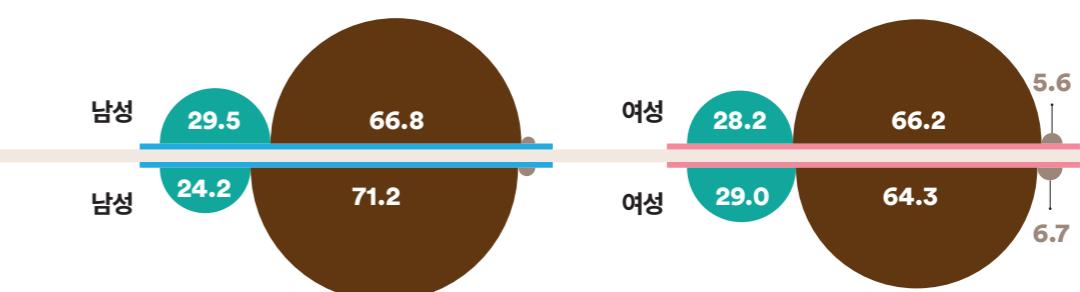
권역

서울	28.0	65.3	6.7
인천·경기	30.4	66.2	3.4
대전·충청·세종	32.9	62.2	4.9
광주·전라	18.3	79.8	1.9
대구·경북	31.5	61.5	7.0
부산·울산·경남	28.4	66.6	5.0
강원·제주	30.0	65.9	4.1

연령

18-29세	27.6	68.3	4.1
18-29 남성	39.6	59.5	0.9
18-29 여성	14.4	77.9	7.7
30대	19.3	76.3	4.4
40대	13.3	83.2	3.5
50대	24.8	73.2	2.0
60대	41.3	51.6	7.1
70세 이상	51.3	40.8	7.9

성별



성별

권역

서울	33.6	62.9	3.5
인천·경기	25.2	69.0	5.9
대전·충청·세종	25.2	67.0	7.8
광주·전라	9.6	81.5	8.9
대구·경북	31.2	63.0	5.7
부산·울산·경남	30.3	66.4	3.3
강원·제주	26.1	66.5	7.4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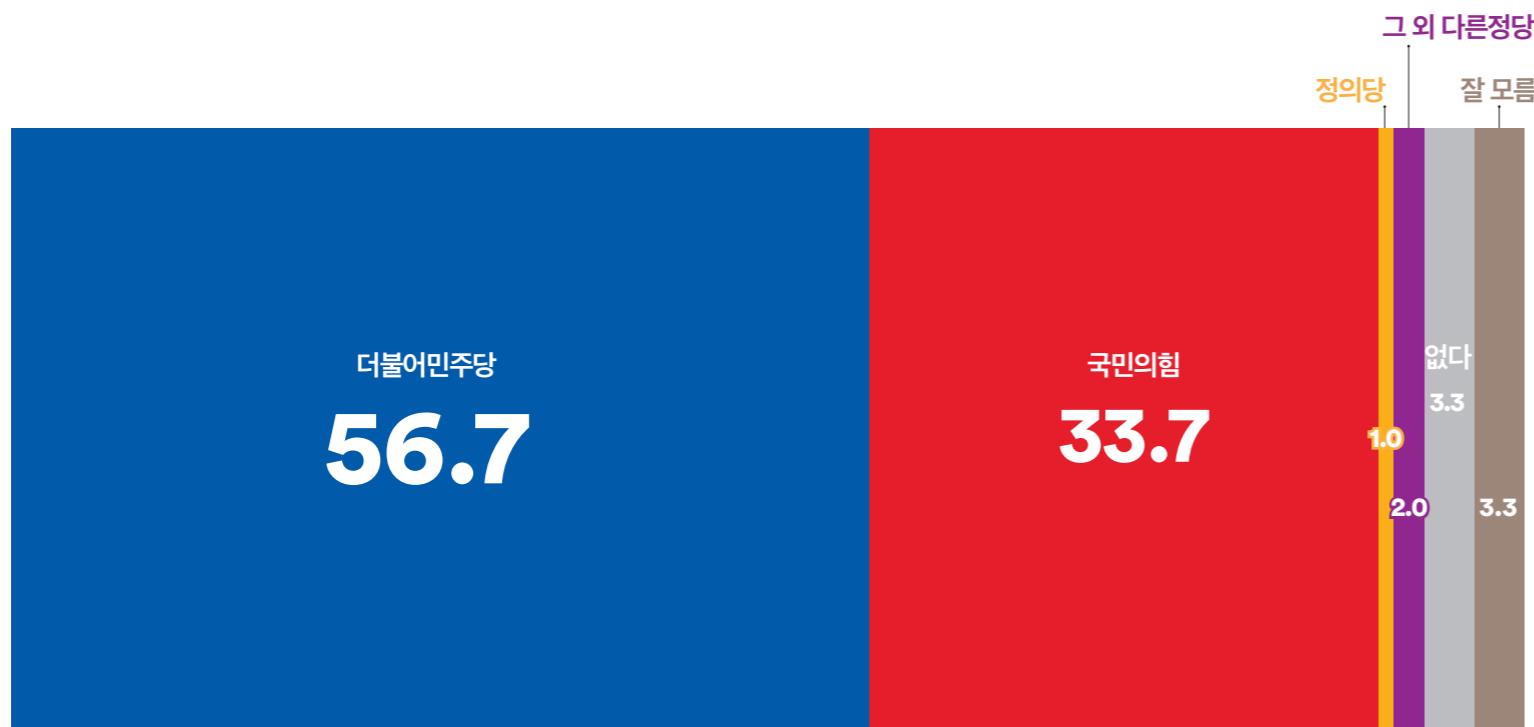
진보	10.4	88.5	1.1
중도	21.2	77.0	1.8
보수	49.3	43.7	7.0
잘 모름	23.3	54.3	22.4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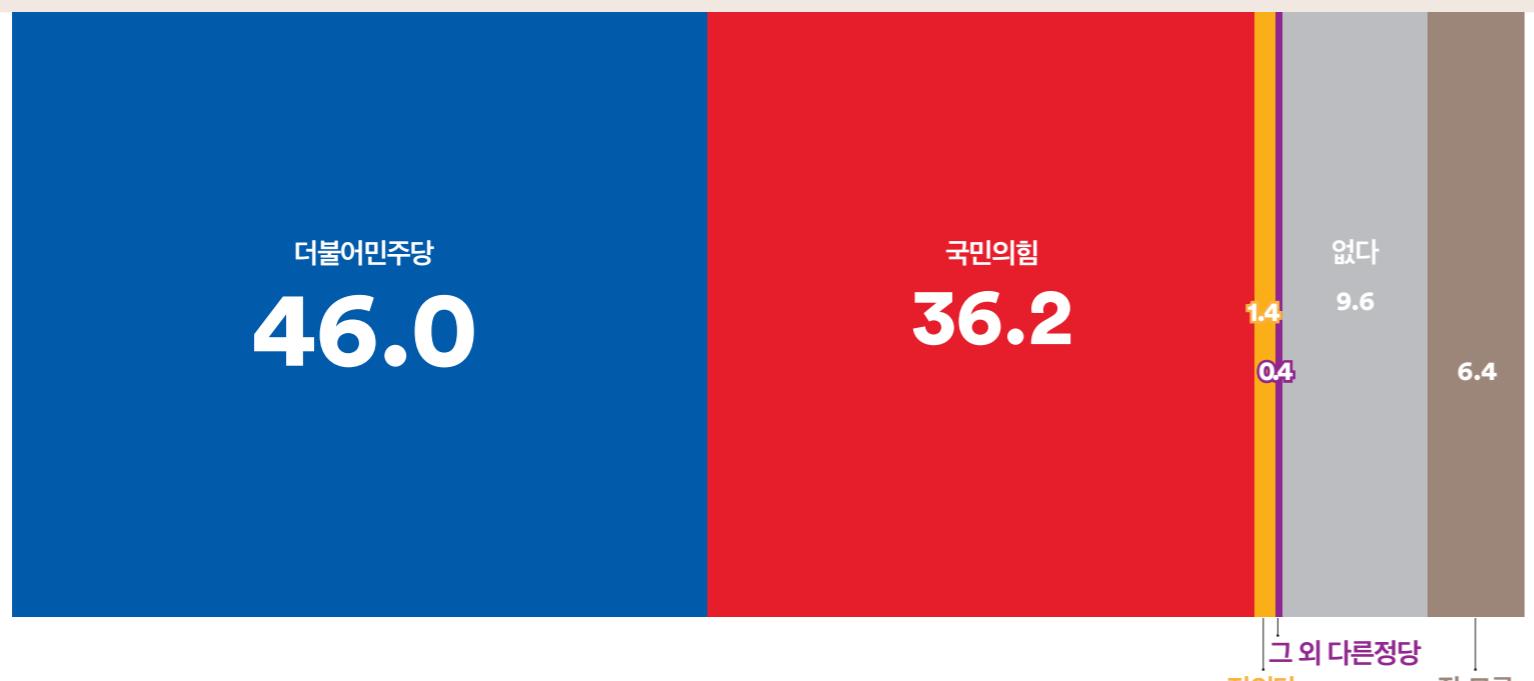
총선: 좌다 의석정당 예측

Q. 어느 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획득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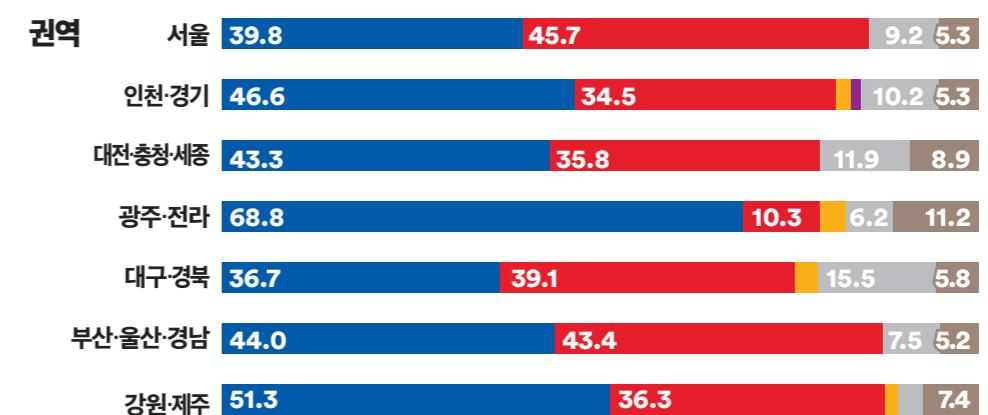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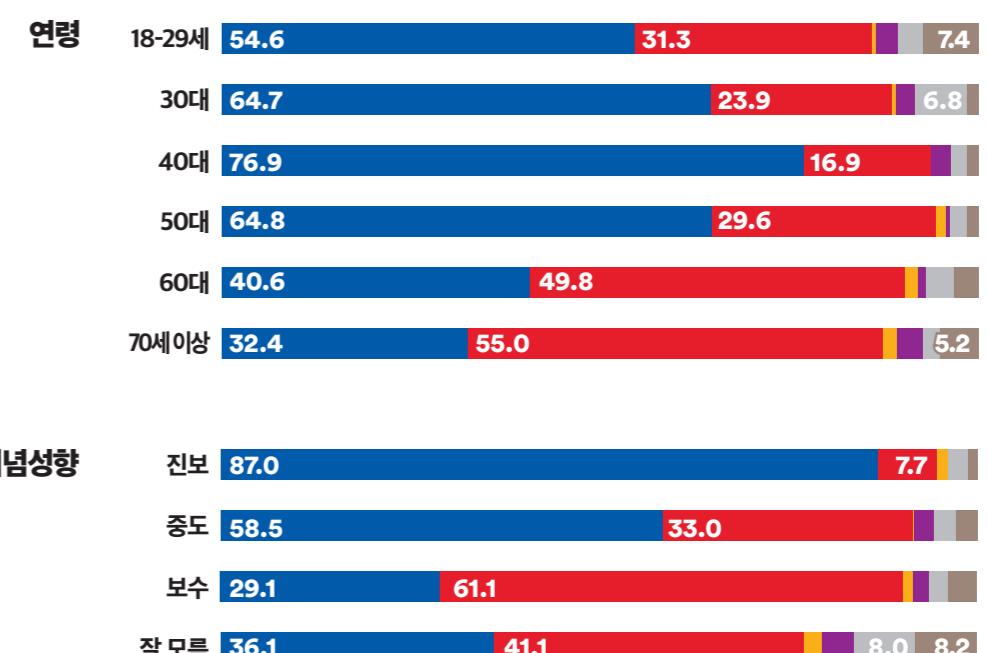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

ARS |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응답이 우세

CATI | 서울과 TK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인, 충청, 호남, 강원·제주의 4개 권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예측

두 조사 모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란 예측이 앞섰



여론조사꽃

제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대통령의 거부권·대통령 배우자의 사진·체감 경제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대통령실: 사진의 주인공
현안 대통령의 결정
우리 경제 상황

대통령실 뉴스룸의 사진뉴스 페이지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단독사진이 대량 게재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과도하게 연출되거나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에 담겨 있어야 할 '공적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도를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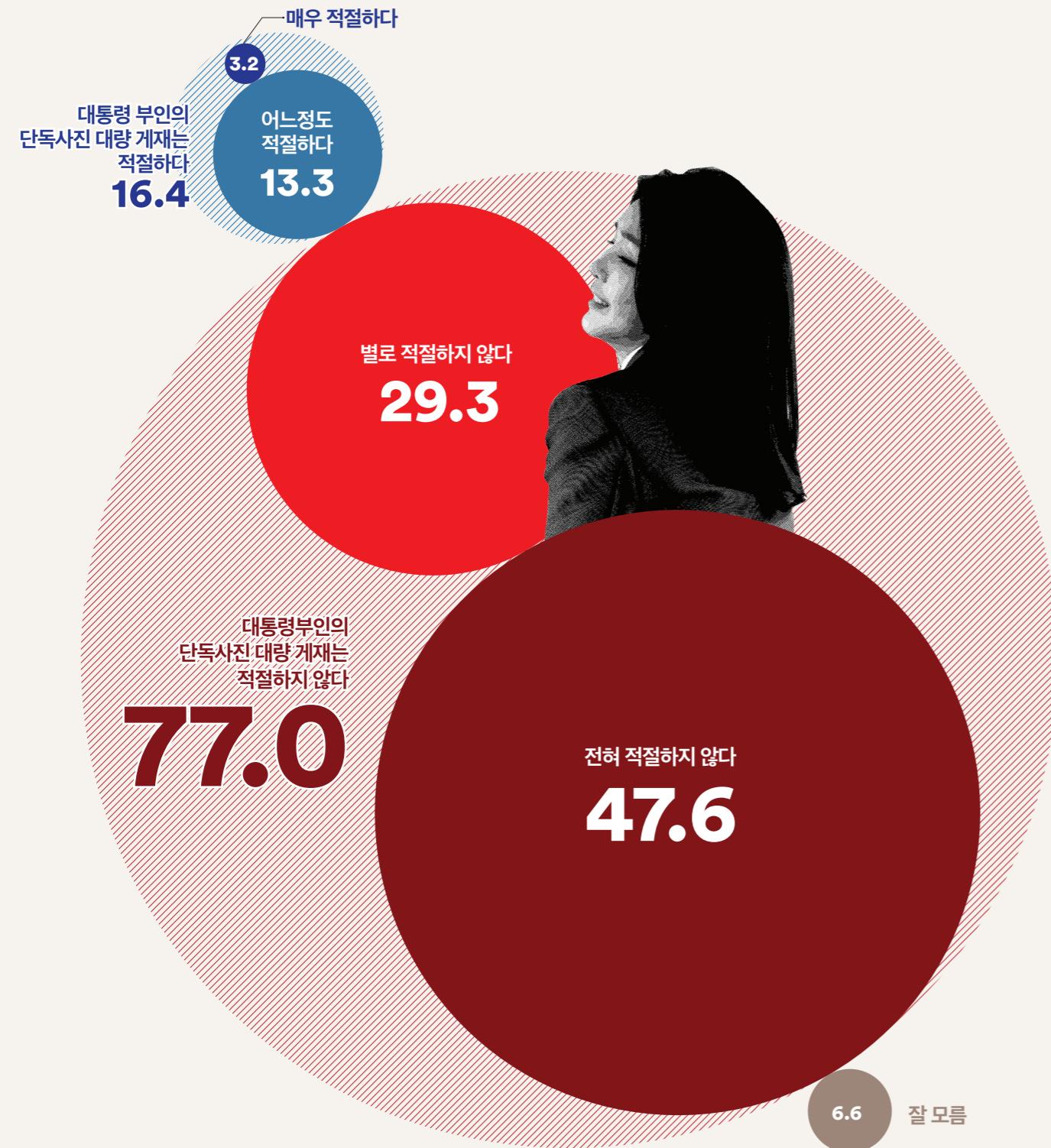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실: 사진의 주인공

Q.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단독사진을 대량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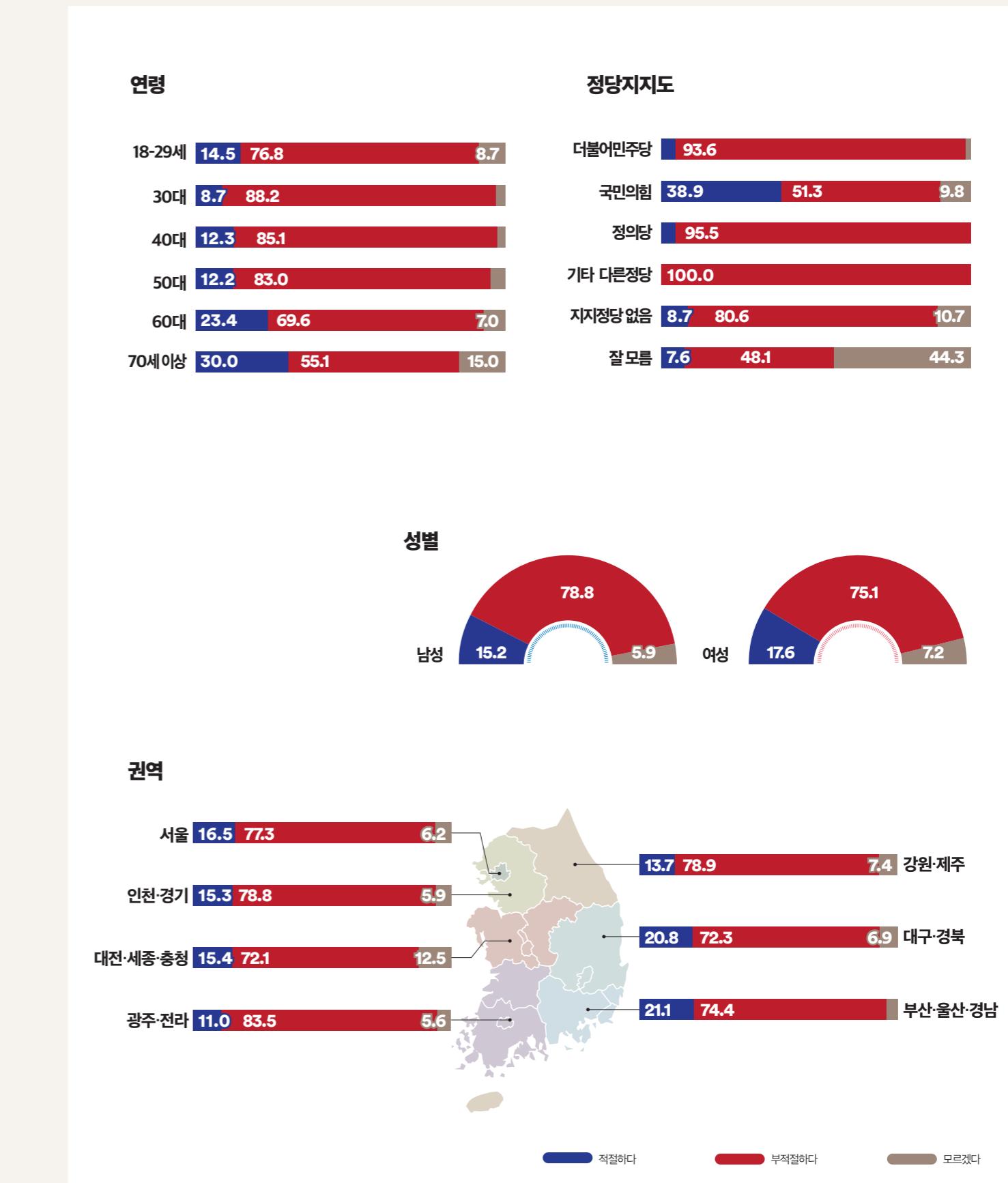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대통령 배우자의 사진 대량 게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51.3%)과 보수층(57.4%)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무당층(80.6%), 중도층(85.3%) 응답자 10명중 8명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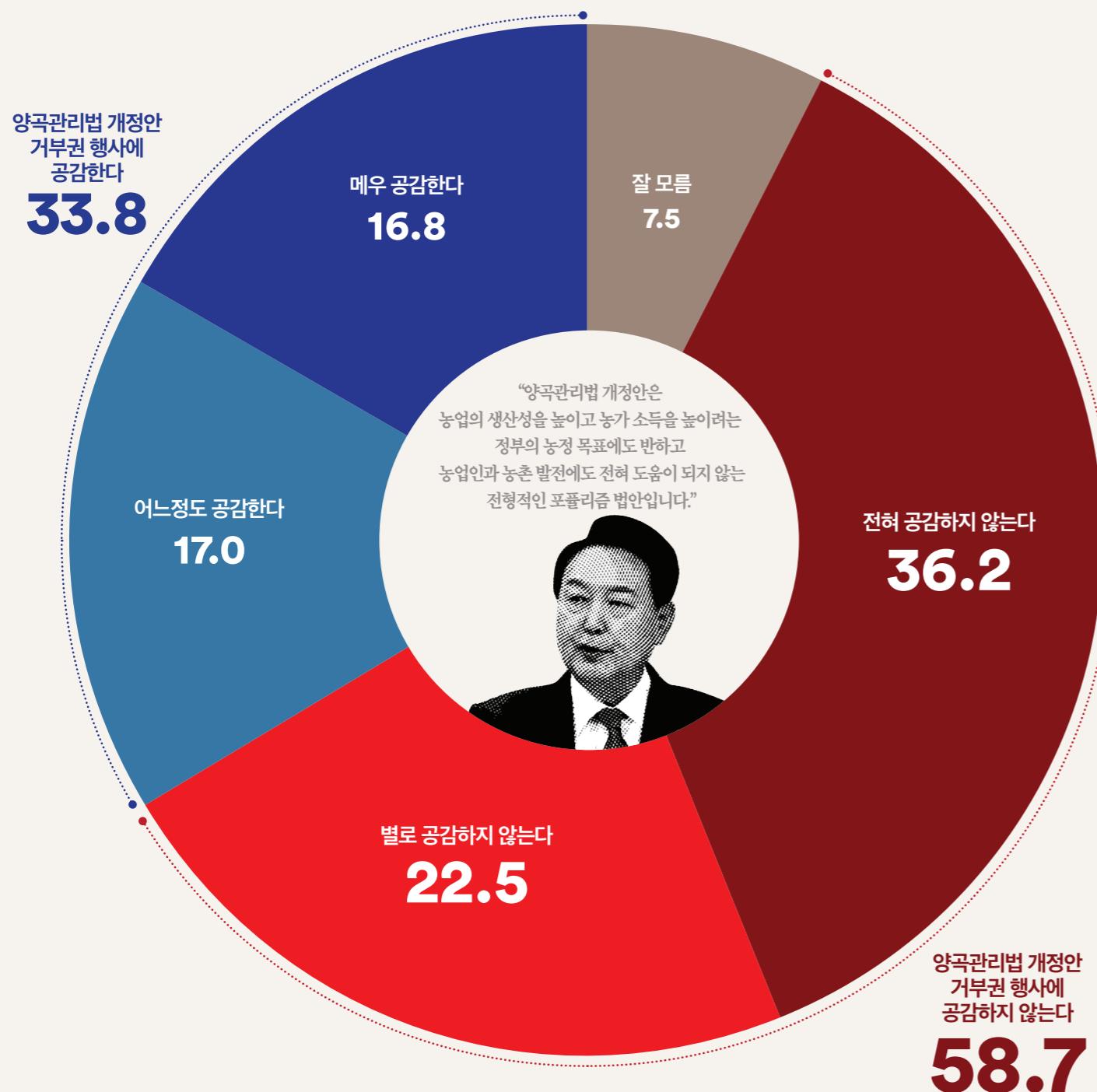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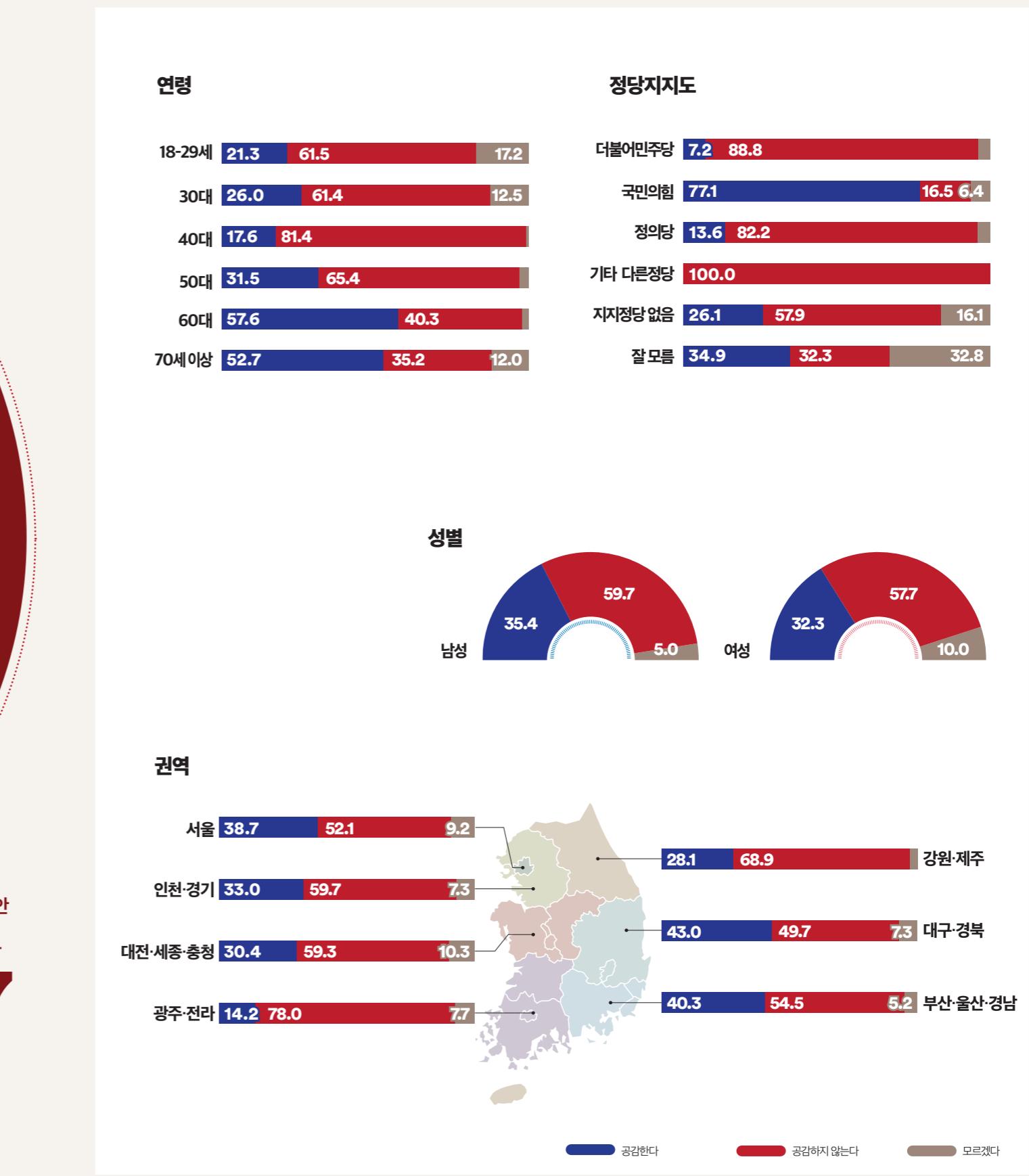
Q.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6명 정도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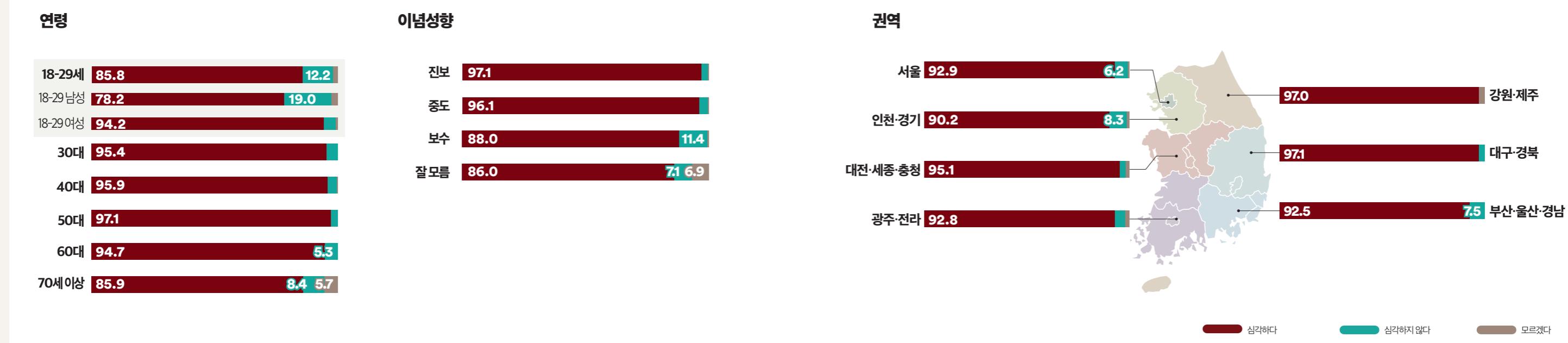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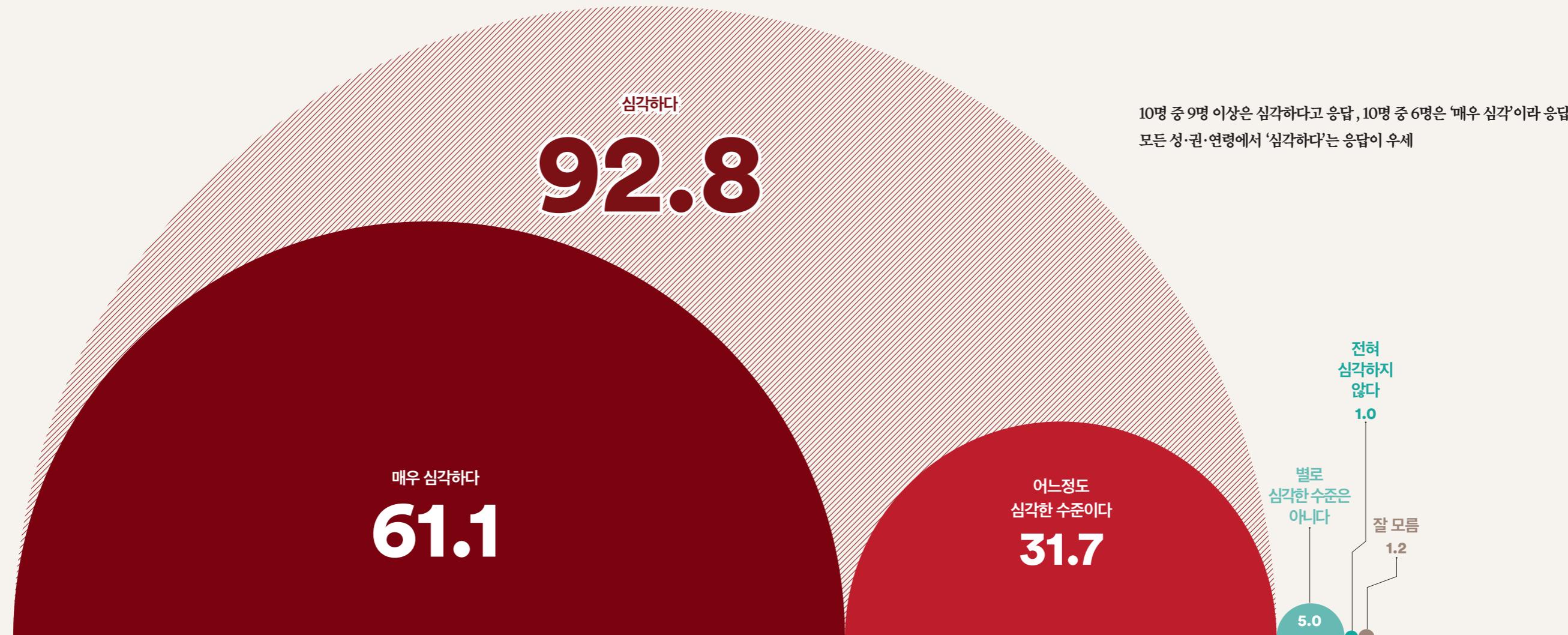
모든 권역과 성별, 50대 이하 응답층, 무당층(57.9%)과 중도층(63.8%)에서도 '비공감' 응답이 앞섰음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비공감', 60대 이상 응답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 세대간 응답이 갈렸음



정치·사회 현안

우리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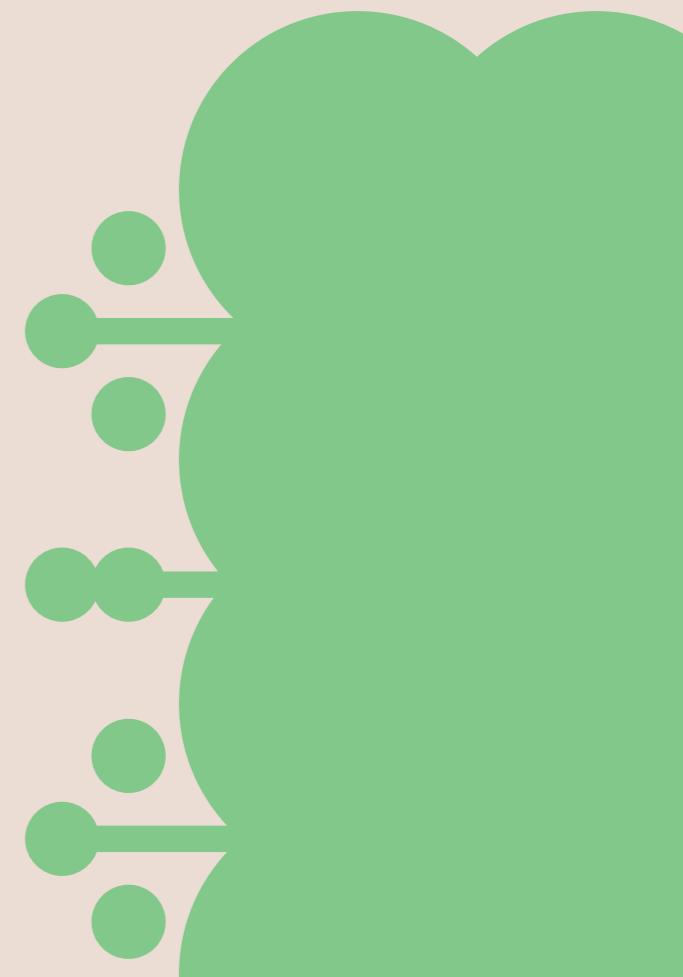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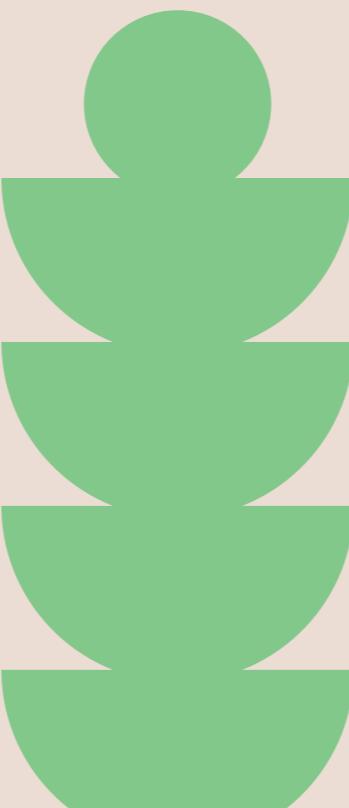
Q.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FOCUS -중도층

중도층의 민심 - 정당지지도·국정지지도

2023년 조사된 데이터 중
중도층의 정당지지도와 국정지지도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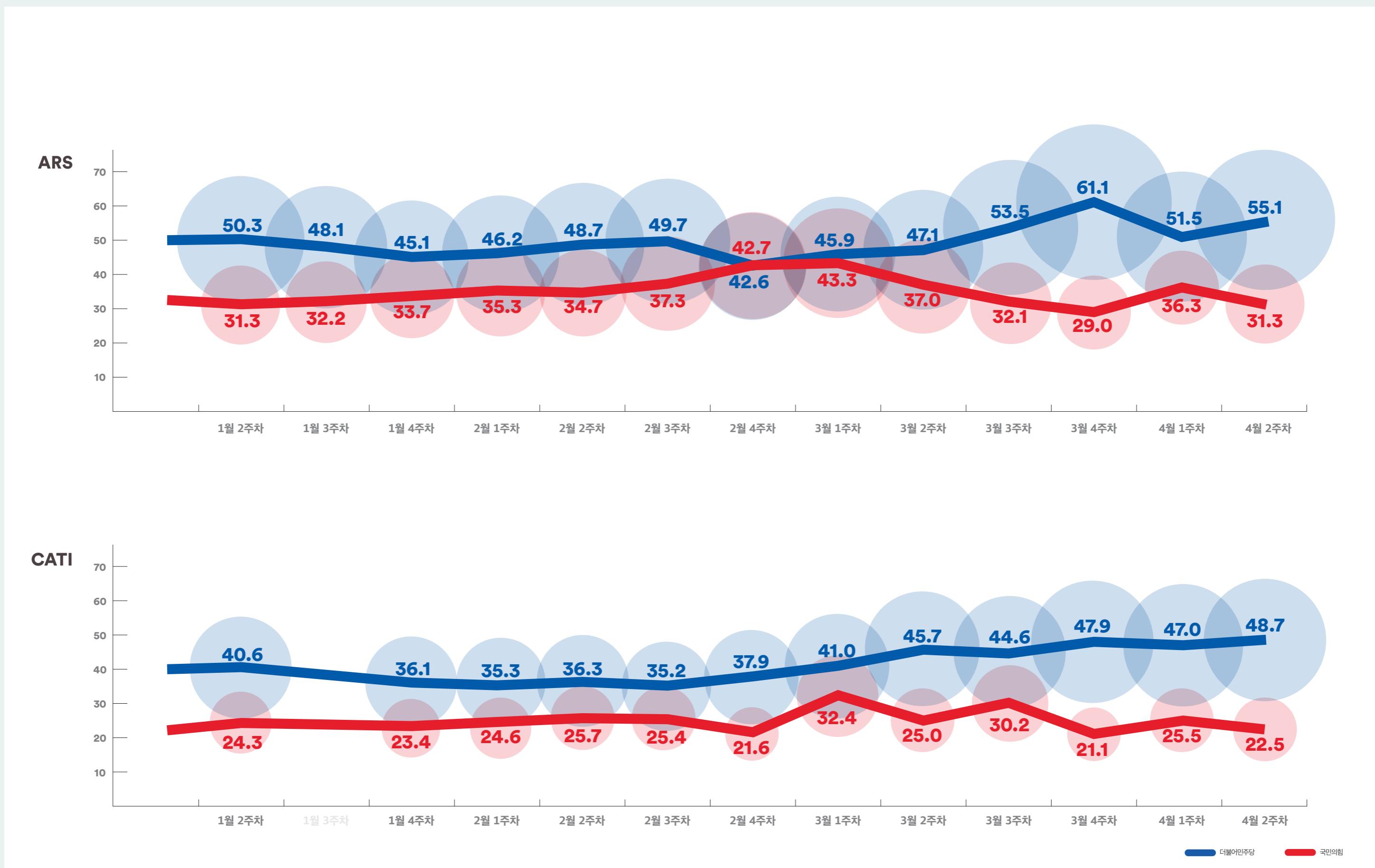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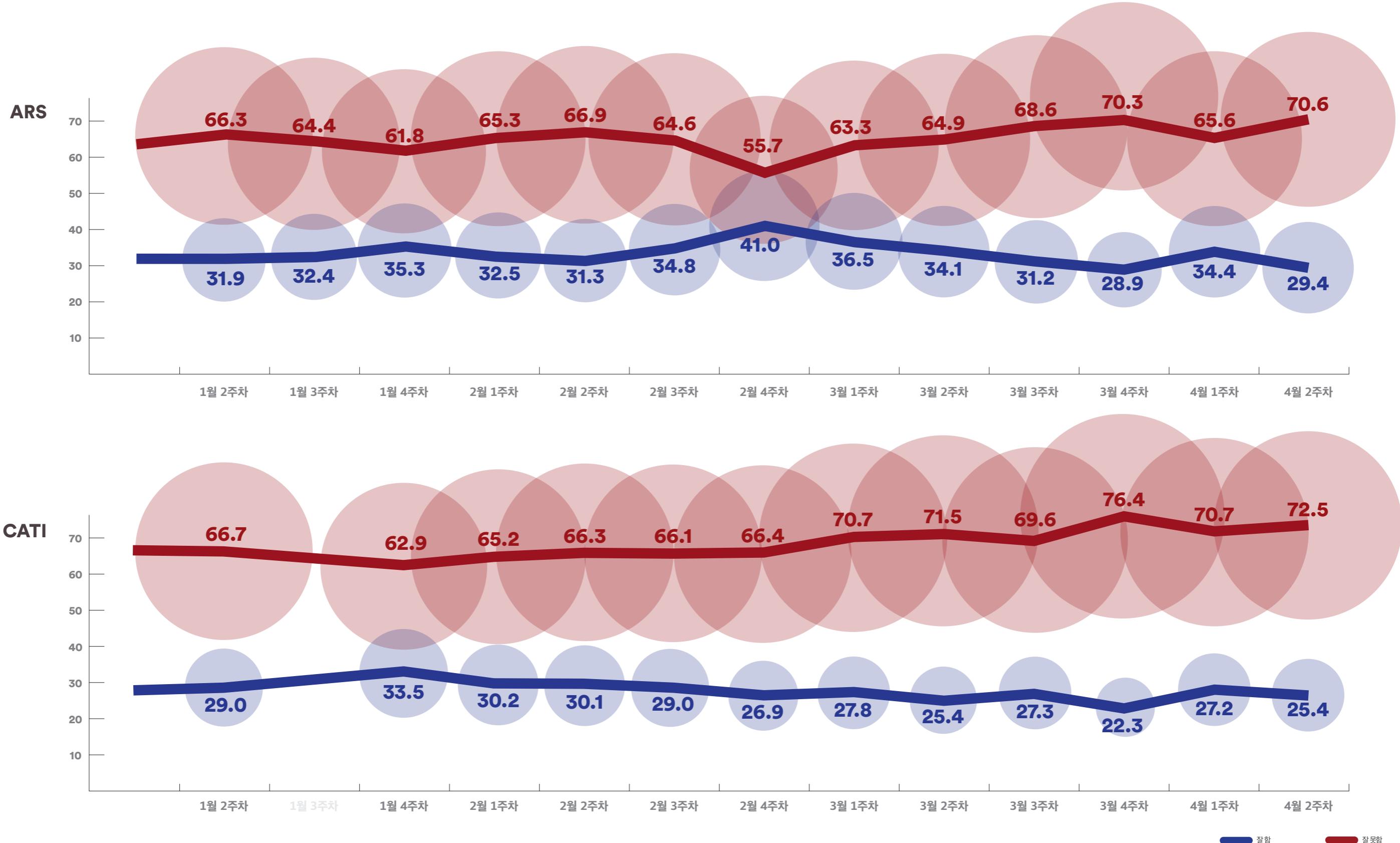
시계열 그래프

2023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변화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시계열 그래프

2023년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꽃 제34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